

『格致藁』의 事心身物과 『東醫壽世保元』의 天人性命과의 상관성 고찰*

林炳學**

차례

- I. 시작하는 말
- II. 『격치고』의 事心身物 四象
- III. 『동의수세보원』의 天人性命 四象구조
- IV. 事心身物과 天人性命의 상관성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이제마의 사상철학과 사상의학의 핵심 키워드인 『격치고』의 事心身物 四象과 『동의수세보원』의 天人性命 四象 구조와의 상관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제마는 『격치고』 제2권 「反誠箴」에서 사상철학의 핵심인 四象을 ‘事心身物’로 규정하고, 제1권 「儒略」에서는 事心身物의 철학적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또 『동의수세보원』 제1권에서는 天人性命의 四象 구조를 통해 사상의학의 철학적 원리를 논하고 있다.

『격치고』에서는 事心身物 四象을 다시 事四端(貌言視聽)·心四端(學問思辨)·身四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5A07040620)

** 충남대학교 철학과 시간강사

端(屈放收伸)·物四端(意慮膽志)으로 논하고, 『동의수세보원』에서는 天人性命 사상 구조를 다시 天(耳目鼻口)·人(肺脾肝腎)·性(領臆臍腹)·命(頭肩腰臀)으로, 또 인간의 구체적인 마음작용에 적용하여 好善之心·惡惡之心·邪心·怠心으로 각각 논하고 있어, 여합부절한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事心身物과 天人性命의 상관성은 事四端인 貌言視聽과 天인 耳目鼻口·心四端인 學問思辨과 人인 肺脾肝腎·物四端인 意慮膽志와 性인 領臆臍腹·身四端인 屈放收伸과 命인 頭肩腰臀이 각각 결부시키고 있다. 따라서 事心身物과 天人性命의 상관성 고찰을 통해, 사상철학과 사상의학의 일관된 논리를 이해할 수 있으며, 그 관계도 일목요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이제마는 선진유학에 학문적 연원을 두고 漢代 이후의 유학자들의 견해를 창조적으로 수용하여 자신만의 사상철학을 완성하고, 이것을 근거로 철학과 의학의 융합이라는 융합정신을 온전히 실천한 철학자임을 알 수 있다.

주제어

『격치고』, 『동의수세보원』, 四象, 사상철학, 사상의학, 事心身物, 天人性命.

I. 시작하는 말

선진유학을 재해석한 이제마는 『격치고』와 『동의수세보원』의 저술을 통해 자신만의 四象哲學을 완성하였고, 나아가 철학과 의학을 융합하는 창조적 융합정신으로 한국의 독창적 의학체계인 사상의학을 창안하였다.

동무는 1880년(44세)에서 1893년(57세)까지 14년에 걸쳐 자신의 철학서인 『格致藁』를 완성하고, 바로 1893년(57세)에서 1894년(58세)까지 2년 동안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하여, 『격치고』와 『동의수세보원』을 거의 동

시에 완성하였다.¹⁾ 즉, 동무는 『격치고』를 통해 사상의학의 설계도가 되는 四象哲學을 완성하고, 그것을 근거로 사상의학을 집성한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완성된 집을 지은 것이다.

한의학계를 비롯한 사상의학 연구자들이 동무의 의학적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연구 논문이나 저서에서 『동의수세보원』이 월등하게 많은 반면, 동무의 철학서인 『격치고』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²⁾ 『동의수세보원』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한의학계에서는 제2권부터 시작하는 사상인의 임상론에 대한 연구에 치우쳐 사상의학의 철학적 근거에 대한 해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 철학계에서는 인식론적 사유에 기초한 심성론이나 수양론·인간관 등에 논의하고 있지만, 『격치고』와 『동의수세보원』을 일관하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격치고』가 동무의 철학사상을 담고 있다고 하지만 『동의수세보원』의 철학사상과의 상관성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물론 사상철학의 심성론이나 수양론 등을 연구한 논문에서 『격치고』와 『동의수세보원』을 부분적으로는 인용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상관성을 연구한 논문을 아직까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동무의 사상철학을 밝히기 위해서는 『격치고』에 근거하여 『동

1) 이세마 저·지규용 譯解, 『동무 격치고 역해』, 영림사, 2001, 11쪽.

2) 『격치고』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이유는 무엇보다 『격치고』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선진유학의 경전인 四書三經에 연원을 두면서도 동무 자신만의 독창적인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격치고』에 대한 연구를 검토해보면, 동무가 『격치고』에서 핵심적으로 밝히고 있는 철학적 내용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제1권 「儒略」에서 밝히고 있는 事心身物 四象에 대한 철학적 의미를 밝히는 연구와 제2권 「反誠箴」에서 핵심적으로 논급한 往來臨立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다만 제3권 「독행편」에서 논급한 仁義禮智와 鄙薄貪懦之心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의수세보원』을 연구해야 하고, 『동의수세보원』에서 논한 사상의학의 철학적 원리를 밝히기 위해서는 『격치고』와의 상관성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事心身物과 天人性命은 『격치고』와 『동의수세보원』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 개념이다. 『격치고』 제 2권 「反誠箴」에서는 사상철학의 핵심인 四象을 ‘事心身物’로 규정하고,³⁾ 제 1권 「儒略」에서는 事心身物の 철학적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⁴⁾ 또 『동의수세보원』 제 1권에서는 「性命論」과 「擴充論」을 중심으로 天人性命의 四象구조를 통해 사상의학의 철학적 원리를 논하고 있다.

事心身物 四象과 天人性命 四象구조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것은 『동의수세보원』에서 직접 事心身物 四象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까지 사상철학에 대한 연구가 『격치고』와 『동의수세보원』을 하나의 논리체계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겠다. 사상철학의 근본이 되는 事心身物과 사상의학의 철학적 원리인 天人性命은 철학과 의학을 융합한 동무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개념으로 상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격치고』의 事心身物과 『동의수세보원』의 天人性命과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먼저 제 2장에서는 『격치고』에서 四象을 규정한 事心身物を 고찰하고, 제 3장에서는 『동의수세보원』에서 사상 구조로 논한 天人性命을 고찰하고, 제 4장에서는 事心身物과 天人性命의 상관성을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3) 『格致藁』, 「反誠箴」, 巽箴, “四象, 事心身物也.”

4) 『격치고』 제1권 「유략」에서는 첫 문장부터 “物은 몸에 깃들고, 身은 마음에 깃들고, 心은事に 깃든다.(物宅身也, 身宅心也, 心宅事也.)”라고 하여, 「반성잠」에서 四象으로 밝힌 ‘事心身物’의 철학적 의미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II. 『격치고』의 事心身物 四象

동무는 『격치고』 제 2권 「反誠箴」에서 四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주역』에서 말씀하시기를 ‘易에는 太極이 있으니, 太極이 兩儀를 낳고, 兩儀는 四象을 낳고, 四象은 八卦를 낳고, 八卦는 吉凶을 정하고, 吉凶이 대업을 낳는다.’라고 하였으니, 太極은 마음이고, 兩儀는 마음과 몸이고, 四象은 事心身物이다. 八卦는 事에는 事의 마침과 시작이 있고, 物에는 物의 근본과 끝이 있고, 心에는 心의 느슨함과 급함이 있고, 身에는 身의 선과 후가 있다.”⁵⁾

『주역』 「繫辭上」 제 11장의 ‘易有太極’⁶⁾을 인용하면서 四象을 ‘事心身物’로 규정하고, 八卦는 事心身物의 작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反誠箴」에서는 八卦와 事心身物 四象의 구체적인 관계를 논하면서, 乾(☰)·兌卦(☱)는 事의 終始라 하고, 坤(☷)·艮卦(☶)는 物의 本末이라 하고, 離(☲)·震卦(☳)는 心의 緩急이라 하고, 坎(☵)·巽卦(☴)는 身의 先後라고 하였다.⁷⁾

『반성잡』에서 四象으로 규정한 事心身物에 대한 철학적인 내용은 제 1권 「儒略」에서 논하고 있는데, 먼저 「유략」 ‘事物’편에서는 “一物은 그치

5) 『格致彙』, 「反誠箴」, 巽箴, “易曰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 生四象, 四象, 生八卦, 八卦, 定吉凶, 吉凶, 生大業, 太極, 心也, 兩儀, 心身也, 四象, 事心身物也, 八卦, 事有事之終始, 物有物之本末, 心有心之緩急, 身有身之先後.”

6) 『周易』, 繫辭上, 제11장, “是故,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 生四象, 四象, 生八卦, 八卦, 定吉凶, 吉凶, 生大業.”

7) 『格致彙』, 「反誠箴」, 巽箴, “乾 事之始也, 兌 事之終也, 坤 物之本也, 艮 物之末也, 離 心之急圖也, 震 心之緩圖也, 坎 身之先着也, 巽 身之後着也.”

는 것이고, 一身은 행동하는 것이고, 一心은 깨닫는 것이고, 一事는 결단하는 것이다.”⁸⁾라고 하여, ‘物’은 만물이 그치는 곳인 땅의 의미이고, 身과 心은 인간의 행위를 의미하고, ‘事’는 물이 터져 넘치는(決) 하늘의 의미로 밝히고 있으며, “萬事는 크고, 一心은 작고, 一身은 가깝고, 萬物은 멀다.”⁹⁾라고 하여, 현상적 입장에서 事와 心은 대소로, 身와 物은 원근으로 논하고 있다.

또한 ‘觀仁’편에서는 시작과 마침을 잘하는 物과 事는 원리를 위주로 한다면, 心과 身은 돌이켜 구하고 부끄러워하는 인간을 위주로 설명하고 있다.¹⁰⁾ 즉, 四象으로 밝힌 事心身物에서 ‘事’는 天에 바탕한 근원적 개념을 상징한다면, ‘物’은 地에 바탕한 현상적 원리를 상징하는 개념이고, ‘心’과 ‘身’은 인간의 구조를 논한 것으로 『주역』의 天地人 三才之道の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事心身物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儒略」 첫 문장에서 “物은 身을 집으로 하고, 身은 心을 집으로 하고, 心은 事를 집으로 한다.”¹¹⁾라고 하여, 物과 身, 心과 事가 서로 관계됨을 논하고, 心은 事에 반응하고 事는 心에 모이며, 身은 物에서 행하고 物은 身에 따른다고¹²⁾ 하여, 事와 心·物과 身을 體用의 관계로 논하고 있다. 또 ‘事物’편에서는 物私와 事私·事

8) 『格致藁』, 「儒略」, 事物, “一物止也, 一身行也, 一心覺也, 一事決也.”

9) 『格致藁』, 「儒略」, 事物, “萬事大也, 一心小也, 一身近也, 萬物遠也, 治平大也, 格致小也, 誠正近也, 修齊遠也.”

10) 『格致藁』, 「儒略」, 觀仁, “效於物, 何也, 善始也. 周於事, 何也, 善終也. 恭於心, 何也, 反求也. 敬於身, 何也, 有恥也.”

11) 『格致藁』, 「儒略」, 事物, “物宅身也, 身宅心也, 心宅事也.”

12) 『格致藁』, 「儒略」, 事物, “心應事也, 博而周也, 事湊心也 察而恭也, 身行物也 立而敬也, 物隨身也 載而效也.”

欲과 物欲·身放과 心放·心逸과 身逸을 서로 대응시켜¹³⁾ 事와 物·心과 身도 서로 체용의 관계로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事와 心은 본체적 입장이라면, 物과 身은 현상적 입장이기 때문에 事心身物은 본체와 작용이 일체화되어 드러나는 四象이며, 事心身物의 관계가 이중적인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즉, 事와 心·物과 身이 체용적 관계이며, 事와 物·心과 身도 체용의 관계이다.¹⁴⁾

한편 동무는 事心身物 四象을 事四端·心四端·身四端·物四端으로 세분하여 일관되게 四象 구조로 논하고 있다.

“貌言視聽은 事四端이고, 辯思問學은 心四端이고, 屈放收伸은 身四端이고, 志膽慮意는 物四端이다.”¹⁵⁾

여기서 事四端·心四端·身四端·物四端은 『주역』을 비롯한 선진유학의 경전에 근거하고 있는데, 事四端인 貌言視聽은 『書經』 「洪範」에서 五事로¹⁶⁾ 밝힌 貌·言·視·聽·思에서 마지막 본체적 의미를 가진 思를 제외한 것이고, 心四端인 辯思問學은 『중용』 제20장의¹⁷⁾ 博學·審問·慎

13) 『格致彙』, 『儒略』, 事物, “是知 物私非不善也, 事私斯不善也, 事欲非不善也, 物欲斯不善也, 身放非不善也, 心放斯不善也, 心逸非不善也, 身逸斯不善也.”

14) 林炳學, 『『格致彙』에 나타난 동무의 易學的 사유체계 - 「유락」편의 事心身物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84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3, 268쪽.

15) 『格致彙』, 『儒略』, 事物, “貌言視聽, 事四端也, 辯思問學, 心四端也, 屈放收伸, 身四端也, 志膽慮意, 物四端也.”

16) 『書經』, 『洪範』, “二五事는 一曰貌 | 오 二曰言이오 三曰視 | 오 四曰聽이오 五曰思 | 니라 貌曰恭이오 言曰從이오 視曰明이오 聽曰聰이오 思曰睿니라.”

17) 『中庸』, 제20장, “博學之하며 審問之하며 慎思之하며 明辨之하며 篤行之니라. 有弗學이언딩 學之인댄 弗能을 弗措也하며 有弗問이언딩 問之인댄 弗知를 弗措也하며 有弗思 | 언딩 思之인댄 弗得을 弗措也하며 有弗辨이언딩 辨之인댄 弗明을 弗措也하며 有

思·明辨·篤行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篤行을 제외한 것이며, 物四端인 志·膽·慮·意와 身四端인 屈·放·收·伸은 『주역』 「繫辭下」¹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먼저 事四端은 인격성을 표현하는 公敬(敬)·충성(忠)·정성(誠)·믿음(信)이 貌言視聽이라¹⁹⁾ 하였고, 또 ‘仁으로 공경하면 貌를 업신여기는 자가 모두 공손 할 것이고, 義로 진실하면 言을 기만하는 자가 모두 쫓을 것이고, 禮로 성실하면 視를 모멸하는 자가 모두 밝을 것이고 智로 믿으면 聽을 속이는 자가 모두 들을 것이다.’²⁰⁾라고 하여, 貌와 仁·言과 義·視와 禮·聽과 智로 각각 결부시켜 仁義禮智와 貌言視聽의 관계를²¹⁾ 논하고 있다.

物四端은 하늘이 나에게 준 德性으로 실존하는 인간은 누구나 志·膽·慮·意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志·膽·慮·意를 확충시키면 浩然之氣를 기를 수 있다고²²⁾ 하였고, 志·膽·慮·意의 不善은 욕심·의롭지 못한 게으름·멋대로 하

弗行이언던 行之인댄 弗篤을 弗措也하야

- 18) 『周易』, 「계사하」, 제5장. “易曰, 憧憧往來, 朋從爾思. 子曰, 天下何思何慮, 天下同歸而殊塗, 一致而百慮, 天下何思何慮. 日往則月來, 月往則日來, 日月相推而明生焉. 寒往則暑來, 暑往則寒來, 寒暑相推而歲成焉. 往者, 屈也. 來者, 信也. 屈信相感而利生焉.”
- 19) 『格致彙』, 「儒略」, 志貌. “人皆貌也, 貌皆敬也. 人皆言也, 言皆忠也. 人皆視也, 視皆誠也. 人皆聽也, 聽皆信也.”
- 20) 『格致彙』, 「儒略」, 志貌. “衆恣相狂, 一仁, 敬之則天下之貌慢者, 皆恭之矣, 恭之者, 孰能違之乎. 衆浪相僭, 一義, 忠之則天下之言詭者, 皆從之矣, 從之者, 孰能違之乎. 衆僞相豫, 一禮, 誠之則天下之視蔑者, 皆明之矣, 明之者, 孰能違之乎. 衆佞相急, 一智, 信之則天下之聽瞞者, 皆聽之矣, 聽之者, 孰能違之乎.”
- 21) 『格致彙』, 「儒略」, 志貌. “莫非貌也, 莫非敬也, 敬久而充貌者, 仁者, 貌也, 莫非言也, 莫非忠也, 忠久而充言者, 義者, 言也, 莫非視也, 莫非誠也, 誠久而充視者, 禮者, 視也, 莫非聽也, 莫非信也, 信久而充聽者, 智者, 聽也.”
- 22) 『格致彙』, 「反誠箴」, 坎箴. “住着之志, 浩然之志也, 廉隅之瞻, 浩然之瞻也, 敦敬之慮, 浩然之慮也, 計劃之意, 浩然之意也.”

는 방자함·사사로움에 있는 것이지,²³⁾ 그 자체는 不善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物四端과 四德의 관계에서는 意와 智·志와 仁·慮와 禮·膽과 義를 같이 논하고,²⁴⁾ 意慮膽志를 哀怒喜樂에 직접 결부시켜²⁵⁾ 意와 哀·志와 樂·慮와 怒·膽과 喜를 함께 논하고 있다.

다음으로 「儒略」 ‘事物’편에서는 心四端인 學問思辨에 대하여, 어두운 마음과 學·단힌 마음과 辨·막힌 마음과 問·엷힌 마음과 思를 연계하여,²⁶⁾ 마음을 바로 心四端인 學問思辨과 연계시키고,²⁷⁾ 私心과 學·慾心과 辨·放心과 問·逸心과 思에²⁸⁾ 결부시켜 논하고 있다.

「反誠箴」에서는 心四端은 『중용』의 明辯, 慎思, 審問, 博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며,²⁹⁾ 『중용』 제20장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인색한 마음은 不智한 마음으로 學에, 속이는 마음은 不仁한 마음으로 辨에, 사치하는 마음은 無禮한 마음으로 問에, 게으른 마음은 不義한 마음으로 思에 각

23) 『格致彙』, 「儒略」, 志貌, “志之不善, 非志才之罪也, 慾之罪也. 膽之不善, 非膽才之罪也, 逸之罪也. 慮之不善, 非慮才之罪也, 放之罪也. 意之不善, 非意才之罪也, 私之罪也.”

24) 『格致彙』, 「反誠箴」, 乾箴, “智者爲意, 萬意同智, 仁者爲志, 萬志同仁, 禮者爲慮, 萬慮同禮, 義者爲膽, 萬膽同義.”

25) 『格致彙』, 「反誠箴」, 乾箴, “此意所往, 萬意不哀, 此志所來, 萬志皆樂, 此慮所臨, 萬慮不怒, 此膽所立, 萬膽皆喜.”

26) 『格致彙』, 「儒略」, 事物, “昧心, 昧學也. 闇心, 闇辨也. 窒心, 窒問也. 罔心, 罔思也.”

27) 『格致彙』, 「儒略」, 天下, “辨所以明也, 肅極邇也. 思所以慎也, 艾極廣也. 問所以審也, 哲極大也. 學所以博也, 謀極蕩也.”

28) 『格致彙』, 「儒略」, 事物, “私心而昧學者, 視天下事忽而視自己事重也, 慾心而闇辨者, 視天下物貪而視自己物屑也, 放心而窒問者, 思一身無慮而橫行則快於心也, 逸心而罔思者, 思一心無爲而自棄則便於身也.”
“抑有不蔽私之道乎, 其學乎, 抑有不礙慾之道乎其辨乎. 抑有不陷放之道乎, 其問乎, 抑有不迷逸之道乎其思乎.”

29) 『格致彙』, 「反誠箴」, 良箴 下截, “餐而明辨, 餐不素餐, 坐而慎思, 坐不閑坐, 接而審問, 接不浪接, 時而博學, 時不費時.”

각 배속하여³⁰⁾ 學과 知·辨과 仁·問과 禮·思와 義를 각각 결부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身四端인 屈放收伸은 간략하게 논하고 있는데, ‘屈放收伸은 힘을 얻는 것이다³¹⁾’라 하였고, 屈은 利·放은 勇·收는 謀·伸은 知에 결부시키고 있다.³²⁾ 또 ‘가는 것은 屈이고 오는 것은 信(伸)이니³³⁾’라고 하였으니, ‘屈’은 往으로 굽히는 것이기 때문에 仁에, ‘伸’은 來로 펴는 것이기 때문에 智에 해당되며,³⁴⁾ ‘放’은 사방으로 흩어지는 義에, ‘收’는 모아서 거두는 禮에 해당되어 四德과의 관계가 밝혀지게 된다.

이상에서 고찰한 事心身物 四象과 事四端·心四端·身四端·物四端의 관계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³⁵⁾

四象	物	身	心	事
事四端	貌	言	視	聽
心四端	辯	思	問	學
身四端	屈	放	收	伸
物四端	志	膽	慮	意

30) 『格致彙』, 『儒略』, 事物, “有弗學, 學之齋與誠, 孰多乎. 有弗辨, 辨之詐與勤, 孰多乎. 有弗問, 問之侈與慧, 孰多乎, 有弗思, 思之懶與能, 孰多乎. 斥齋而反誠則智無偏矣. 却詐而趨勤則仁無倚矣. 戒侈而治慧則禮無過矣. 警懶而習能則 義無不及矣.”

31) 『格致彙』, 『反誠箴』, 離箴, “屈伸收放 力之得也.”

32) 『格致彙』, 『儒略』, 天下, “屈所以積也, 利相趨也. 放所以廓也, 勇相助也. 收所以弘也, 謀相成也. 伸所以豁也, 知相求也.”

33) 『周易』, 계사하편, 제5장, “往者, 屈也. 來者, 信也.”

34) 往來와 屈伸에 대한 문제는 『周易』의 학문적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往은 洛書의 작용이라면, 來는 河圖의 작용이다.

35) 임병학, 『『格致彙』에 나타난 동무의 易學的 사유체계-『유락』편의 事心身物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84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3, 282쪽.

Ⅲ. 『동의수세보원』의 天人性命 四象 구조

동무는 「性命論」 첫 문장에서 “天機에 넷이 있는데, 첫째는 地方이고, 둘째는 人倫이고, 셋째는 世會이고, 넷째는 天時이다. 人事에 넷이 있는데, 첫째는 居處이고, 둘째는 黨與이고, 셋째는 交遇이고, 넷째는 事務이다. 귀로 天時를 들으며, 눈으로 世會를 보며, 코로 人倫을 냄새 맡으며, 입으로 地方을 맛본다. …… 肺는 事務에 정통하며, 脾는 交遇에 합하며, 肝은 黨與를 세우며, 腎은 居處를 정한다.”³⁶⁾라고 하여, 天機인 天時·世會·人倫·地方은 耳目鼻口와 人事인 事務·交遇·黨與·居處는 肺脾肝腎에 각각 결부시키고 있다.

이어서 “턱에는 籌策이 있고, 가슴에는 經綸이 있고, 배꼽에는 行檢이 있고, 배에는 度量이 있다. …… 머리에 識見이 있고, 어깨에는 威儀가 있고, 허리에 材幹이 있고, 엉덩이에는 方略이 있다.”³⁷⁾라고 하여, 인간의 頷臆臍腹에는 籌策·經綸·行檢·度量이 있고, 頭肩腰臀에는 識見·威儀·材幹·方略이 있다고 하였다.

「性命論」에서는 위의 인용문을 종합하면서, ‘天機 有四인 天時·世會·人倫·地方은 대동한 것이고, 人事 有四인 事務·交友·黨與·居處는 各立한 것이며, 籌策·經綸·行檢·度量은 널리 통하는 것이고, 識見·威儀·材幹·方略은 홀로 행하는 것이다.’³⁸⁾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하

36)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天機有四, 一曰地方, 二曰人倫, 三曰世會, 四曰天時. 人事有四, 一曰居處, 二曰黨與, 三曰交遇, 四曰事務. 耳聽天時, 目視世會, 鼻嗅人倫, 口味地方. …… 肺達事務, 脾合交遇, 肝立黨與, 腎定居處.”

37)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頷有籌策, 臆有經綸, 臍有行檢, 腹有度量. …… 頭有識見, 肩有威儀, 腰有材幹, 臀有方略.”

고 있다.

“대동한 것은 天이고, 각립한 것은 人이며, 널리 통하는 것은 性이고, 홀로 행하는 것은 命이다.”³⁹⁾

大同한 天機 有四는 天·各立한 人事 有四는 人·籌策·經綸·行檢·度量은 性·識見·威儀·材幹·方略은 命이라 하여, 天人性命의 四象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天機를 聽視嗅味하는 耳目鼻口는 天·人事를 達合立定하는 肺脾肝腎은 人·頤臆臍腹은 性·頭肩腰臀은 命에 각각 배속되는 것이다.

또 「장부론」 마지막에서도 “마음은 한 몸의 주재로서 네 모퉁이와 마음을 등에 지고 앞가슴의 중앙을 올라로 향하여 불빛처럼 밝게 빛나서, 耳目鼻口는 살피지 않음이 없고, 肺脾肝腎은 헤아리지 않음이 없고, 頤臆臍腹은 진실하지 않음이 없고, 頭手腰足은 공경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⁴⁰⁾ 라고 하여, 마음을 본체로 天(耳目鼻口)·人(肺脾肝腎)·性(頤臆臍腹)·命(頭手腰足)의 四象 구조를 논하고 있다.

天人性命 사상 구조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보면, 위 인용문에서 天과 人·性과 命이 각각 體用的 관계이며, 또 大同한 天과 博通한 性이 서로

38)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天時, 大同也, 事務, 各立也, 世會, 大同也, 交遇, 各立也, 人倫, 大同也, 黨與, 各立也, 地方, 大同也, 居處, 各立也. 籌策, 博通也, 識見, 獨行也, 經綸, 博通也, 威儀, 獨行也, 行檢, 博通也, 材幹, 獨行也, 度量, 博通也, 方略, 獨行也.”

39)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大同者, 天也, 各立者, 人也, 博通者, 性也, 獨行者, 命也.”

40)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心, 爲一身之主宰, 負隅背心, 正向臆中, 光明瑩澈, 耳目鼻口, 無所不察, 肺脾肝腎, 無所不付, 頤臆臍腹, 無所不誠, 頭手腰足, 無所不敬.”

작을 이루고, 各立한 人과 獨行하는 命이 짝을 이룬다고 하겠다.⁴¹⁾ 『臟腑論』에서도 舌下·兩乳·臍·前陰(頷臆臍腹)과 耳目鼻口, 두뇌·등·허리·방광(頭肩腰臀)과 肺脾肝腎을 연계시키고 있으며,⁴²⁾ 『反誠箴』 離箴下截에서는 耳目鼻口와 頷臆臍腹에 있는 驕矜伐夸之心을 함께 논하고 있다.⁴³⁾

한편 『性命論』에서는 天人性命의 四象 구조를 통해 인간의 마음 작용도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사람의 이목비구가 선을 좋아함이 비할 바 없고, 사람의 폐비간신은 악을 미워함이 비할 바 없고, 사람의 頷臆臍腹은 샷된 마음이 비할 바 없고, 사람의 頭肩腰臀은 대만한 마음이 비할 바 없다.”⁴⁴⁾

인간의 마음도 天人性命의 사상 구조에 대응하여, 天은 好善之心·人은 惡惡之心·性은 誣世之心(邪心)·命은 罔民之心(怠心)에 결부시켜 四象心⁴⁵⁾

-
- 41) 임병학, 『동무 이제마의 四象의 사유체계와 『맹자』』,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53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244쪽.
- 42)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舌之津海, 耳之根本也, 乳之膏海, 目之根本也, 臍之油海, 鼻之根本也, 前陰之液海, 口之根本也. 頭腦之賦海, 肺之根本也, 背脊之膜海, 脾之根本也, 腰脊之血海, 肝之根本也, 膀胱之精海, 腎之根本也.”
- 43) 『格致彙』, 『反誠箴』, 離箴 下截, “耳之聲, 愚於達人之總則, 必慕達人之驕. 目之色, 怯於大吏之統則, 必慕大吏之矜. 鼻違嗅, 濁於豪士之帥則, 必慕豪士之伐. 口之味, 劣於酋長之管則, 必慕酋長之夸.”
- 44)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人之耳目鼻口, 好善無雙也, 人之肺脾肝腎, 惡惡無雙也. 人之頷臆臍腹, 邪心無雙也, 人之頭肩腰臀, 怠心無雙也.”
- 45) ‘四象心’이라는 개념을 동무가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四象哲學에 근거한 인간의 마음도 네 가지로 논하고 있기 때문에 논자는 『성명론』에서 논한 好善之心·惡惡之心·邪心·怠心을 ‘四象心’으로 개념화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四象心에 대한 내용은 임병학의 『사상철학의 마음연구(1)』 『동의수세보원』 『성명론』의 四象心에 관한 고찰,

을 밝히고 있다.

또 四象心에 대하여 “耳는 좋은 소리를 좋아하고 目은 좋은 빛을 좋아하고 鼻는 좋은 냄새를 좋아하고 口은 좋은 맛을 좋아한다. …… 肺는 악한 소리를 싫어하고 脾는 악한 빛을 싫어하고 肝은 악한 냄새를 싫어하고 腎은 악한 맛을 싫어한다. …… 脰에는 驕心이 있고 가슴에는 矜心이 있고 배꼽에는 伐心이 있고 배에는 夸心이 있다. …… 머리에에는 擅心이 있고 어깨에는 侈心이 있고 허리에에는 懶心이 있고 엉덩이에는 欲心이 있다.”⁴⁶⁾라고 하여, 好善之心은 善聲·善色·善臭·善味로, 惡惡之心은 惡聲·惡色·惡臭·惡味로, 邪心은 驕心·矜心·伐心·夸心으로, 怠心은 奪心·侈心·懶心·竊心으로 나누어, 天人性命의 四象 구조를 다시 四象으로 논하고 있다.

天機 有四인 天時·世會·人倫·地方을 聽視嗅味하는 耳目鼻口에 好善之心을 연계시켜 善聲·善色·善臭·善味으로 논하고, 人事 有四인 事務·交遇·黨與·居處를 達合立定하는 肺脾肝腎에 惡惡之心을 연계시켜 惡聲·惡色·惡臭·惡味로 논하고, 領臆臍腹에는 籌策·經綸·行檢·度量과 함께 驕心·矜心·伐心·夸心이 있다고 하고, 頭肩腰臀에는 識見·威儀·材幹·方略과 함께 奪(擅)心·侈心·懶心·竊心이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동의수세보원』 제1권에서 논한 天人性命의 四象 구조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서각』 제35집,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5)을 참고 바람.

46)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耳好善聲, 目好善色, 鼻好善臭, 口好善味. …… 肺惡惡聲, 脾惡惡色, 肝惡惡臭, 腎惡惡味. …… 領有驕心, 臆有矜心, 臍有伐心, 腹有夸心. …… 頭有擅心, 肩有侈心, 腰有懶心, 臀有欲心.”

四象 (四象心)				
天 (好善)	耳 (善聲)	目 (善色)	鼻 (善臭)	口 (善味)
人 (惡惡)	肺 (惡聲)	脾 (惡色)	肝 (惡臭)	腎 (惡味)
性 (邪心)	頷 (驕心)	臆 (矜心)	臍 (伐心)	腹 (夸心)
命 (怠心)	頭 (奪心)	肩 (侈心)	腰 (懶心)	臀 (竊心)

IV. 事心身物과 天人性命의 상관성

앞장에서 고찰한 『격치고』의 事心身物 四象과 『동의수세보원』의 天人性命 사상 구조를 통해, 사상철학의 근거가 되는 『周易』과 사상철학을 담고 있는 『格致藁』 그리고 사상의학을 집성하고 있는 『동의수세보원』의 학문적 체계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⁴⁷⁾

47) 임병학, 「사상철학의 마음연구(1) 『동의수세보원』 「성명론」의 四象心에 관한 고찰」, 『장서각』 제35집,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5, 230쪽 참조.

〈사상철학의 事心身物과 天人性命 구조도〉

선진유학 (『주역』)	사상철학 (『격치고』)	사상의학 (『동의수세보원』)	
太極	心		心
兩儀 (陰陽)	心身		
四象 (元亨利貞)	事 心 身 物	天 人 性 命	好善之心 惡惡之心 誣世之心(邪心) 罔民之心(怠心)
八卦 (乾·坤·坎·離·震 ·巽·艮·兌)	事之終始 心之緩急 身之先後 物之本末		
四象之四象	貌言視聽(事四端) 學問思辨(心四端) 屈放收伸(身四端) 意慮臆志(物四端)	耳目鼻口(天) 肺脾肝腎(人) 額臆臍腹(性) 頭肩腰臀(命)	善聲·善色·善臭·善味 惡聲·惡色·惡臭·惡味 驕心·矜心·伐心·夸心 奪心·侈心·懶心·竊心

위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격치고』와 『동의수세보원』의 학문체계는 四象 구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전개하고 있다.

『격치고』의 事心身物에서 事와 物·心和 身, 또 事와 心·物과 身이 각각 체용의 관계이며, 『동의수세보원』의 天人性命에서 天和 人·性和 命, 또 天和 性·人和 命이 각각 체용의 관계임을 중심으로 그 상관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격치고』 「독행편」에서는 天機를 聽視嗅味하는 耳目鼻口와 事四端인 貌言視聽을 다음과 같이 결부시키고 있다.

“말하기를 ‘그러면 다른 까닭은 무엇입니까?’ 말하기를 ‘요순의 耳目鼻口는 사사로움에 가리지 않아서 貌言視聽을 잘하고, 일반 사람의 耳目鼻口는 사사로움에 가려져 貌言視聽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⁴⁸⁾

또 「독행편」에서는 “사방에서 듣는 통달은 귀에서 나오고, 사방으로 보는 밝음은 눈에서 나오며, 예에 맞는 말은 입에서 나오고, 예에 맞는 용모는 코에서 나온다.”⁴⁹⁾라고 하여, 事四端인 聽視言貌을 耳目鼻口의 작용인 聽視嗅味로 논하고 있다.

또한 人事를 達合立定하는 肺脾肝腎과 心四端인 學問思辨을 「독행편」에서 다음과 같이 결부시키고 있다.

“요순의 肺脾肝腎은 욕심에 가려지지 않고 學問思辨을 잘하고, 일반 사람의 肺脾肝腎은 욕심에 가려져서 學問思辨을 잘하지 못한다.”⁵⁰⁾

「臟腑論」에서는 “肺는 반드시 學을 잘하고, 脾는 반드시 問을 잘하고, 肝은 반드시 思를 잘하고, 腎은 반드시 辨을 잘한다.”⁵¹⁾라고 하여, 肺와 學·脾와 問·肝과 思·腎과 辨을 직접 결부시켜 논하고 있다.

다음으로 「反誠箴」 離箴下截에서는 다음과 같이 物四端인 意慮膽志와 性인 頷臆臍腹을 직접 결부시켜 논하고 있다.

48) 『格致彙』, 「獨行篇」, “曰然則 其所以異者, 何耶. 曰堯舜之耳目口鼻, 不蔽於私而善於聽視言貌, 衆人之耳目口鼻, 蔽於私而不善於聽視言貌.”

49) 『格致彙』, 「獨行篇」, “四聽之達, 出於耳, 四目之明, 出於目, 中禮之言, 出於口, 中禮之貌, 出於鼻, 是故 凡人之有耳目口鼻者, 不修則己 若修之則, 皆善才也.”

50) 『格致彙』, 「獨行篇」, “堯舜之肺脾肝腎, 不蔽於慾而善於學問思辨, 衆人之肺脾肝腎, 蔽於慾而不善於學問思辨.”

51)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肺必善學, 脾必善問, 肝必善思, 腎必善辨.”

“턱(頷)의 眞을 달인의 意에 합덕하면 반드시 達人之 지혜를 얻고, 가슴(臆)의 氣를 大吏의 慮에 합덕하면 반드시 大吏의 용기를 얻고, 배꼽(臍)의 血을 豪士의 趣에 합덕하면 반드시 豪士의 淸를 얻고, 배(腹)의 腋을 酋長의 志에 합덕하면 반드시 酋長의 淸함을 얻을 것이다.”⁵²⁾

頷과 意·臆과 慮·臍와 趣(臆)·腹과 志를 직접 결부시키고 있으며, 物四端과 性의 결부에 대해서는 『격치고』와 『동의수세보원』의 여러 곳에서 논하고 있다.

『동의수세보원』 「性命論」에서는 性과 物四端到 대해서, “턱에는 驕心이 있고 가슴에는 矜心이 있고 배꼽에는 伐心이 있고 배에는 夸心이 있다. 驕心은 뜻(意)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矜心은 려(慮)를 자궁하는 것이고 伐心은 조(操)를 자랑하는 것이고 夸心은 뜻(志)을 자과하는 것이다.”⁵³⁾ 라고 하여, 性인 頷臆臍腹에 있는 驕心·矜心·伐心·夸心을 物四端인 意慮臆(操)志로 설명하고 있다.

또 「反誠箴」 乾箴에서도 “진실한 사람이 意를 함에 속임수와 교만이 없고, 진실한 사람이 慮를 함에 속임수나 자궁함이 없고, 진실한 사람이 臆을 함에 속임수나 자랑이 없고, 진실한 사람이 志를 함에 속임수나 자과가 없다.”⁵⁴⁾ 라고 하여, 意와 驕心·慮와 矜心·臆과 伐心·志와 夸心을

52) 『格致彙』, 「反誠箴」, 離箴 下載, “頷之眞, 合於達人之意, 則必得達人之知, 臆之氣, 合於大吏之慮, 則必得大吏之勇, 臍之血, 合於豪士之趣, 則必得豪士之淸, 腹之腋, 合於酋長之志, 則必得酋長之優.”

53)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頷有驕心, 臆有矜心, 臍有伐心, 腹有夸心. 驕心驕意也, 矜心矜慮也, 伐心伐操也, 夸心夸志也.”

54) 『格致彙』, 「反誠箴」, 乾箴, “誠者爲意, 無誣無驕, 誠者爲慮, 無詒無矜, 誠者爲臆, 無譎無伐, 誠者爲志, 無誣無夸. 此意所往, 百往無憂, 此志所來, 百來無憂, 此慮所臨, 百臨無憂, 此臆所立, 百立無憂.”

결부시키고 있으며, 「反誠箴」, 兌箴에서는 物四端인 意慮膽志를 넓게 가지면 性인 額臆臍腹에 있는 誣世之心(邪心)인 교만한 마음·자극하는 마음·자랑하는 마음·자과하는 마음이 없어진다고 하였다.⁵⁵⁾

또한 「장부론」에서는 “津海는 意를 감추고, 膏海는 慮를 감추고, 油海는 操를 감추고, 液海는 志를 감추고”⁵⁶⁾라고 하여, 物四端인 意慮膽志와 性인 額臆臍腹을 직접적으로 결부시키지는 않지만 그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津海와 意·膏海와 慮·油海와 操(膽)·液海와 志를 연계시킴으로써 額臆臍腹의 性이 物四端과 결부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津海·膏海·油海·液海는 각각 舌下·兩乳·臍·前陰에서 생성되어 머무는 것으로⁵⁷⁾ 額臆臍腹의 人體 부위이기 때문에 物四端으로 논한 것이다.

또 「太陽人內觸小腸病論」에서는 “태양인은 意가 강하고 操가 약하니 意가 강하면 위완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呼散하는 기가 크게 지남으로 넘어서게 되고, 操가 약하면 소장의 기운이 중에 붙잡혀서 吸의 모이는 것이 지탱하지 못하여 주리게 되니, 그 병인 열격·반위가 되는 것이다.”⁵⁸⁾라고 하여, 意와 操(膽)을 胃脘과 小腸과 함께 논하고 있는데, 위완과 소장은 上焦와 中下焦의 四腑로 그 기 흐름이 額과 臍와 직접 연계되기 때문에 額臆臍腹과 物四端이 결부됨을 알 수 있다.

55) 『格致彙』, 「反誠箴」, 兌箴, “意廣, 自無驕心, 慮廣, 自無矜心, 膽廣, 自無伐心, 志廣, 自無吝心.”

56)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津海藏意, 膏海藏慮, 油海藏操, 液海藏志.”

57)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水穀溫氣, 自胃脘而化津, 入于舌下爲津海, 津海者, 津之所舍也, …… 水穀熱氣, 自胃而化膏, 入于臍間兩乳爲膏海, 膏海者, 膏之所舍也, …… 水穀涼氣, 自小腸而化油, 入于臍爲油海, 油海者, 油之所舍也, …… 水穀寒氣, 自大腸而化液, 入于前陰毛際之內爲液海, 液海者, 液之所舍也.”

58) 『東醫壽世保元』, 「太陽人內觸小腸病論」, “太陽人, 意強而操弱, 意強則胃脘之氣, 上達而呼散者, 太過而越也. 操弱則小腸之氣, 中執而吸聚者, 不支而餒也, 所以其病, 爲噎膈反胃也.”

마지막으로 身四端인 屈放收伸과 命인 頭肩腰臀의 결부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장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臑海의 탁한 찌꺼기는 머리가 곧게 펴는 힘으로 단련하여 피부와 털을 이루게 하고, 膜海의 탁한 찌꺼기는 손이 능히 거두는 힘으로 단련하여 힘줄(筋)을 이루게 하고, 血海의 탁한 찌꺼기는 허리가 너그럽게 놓아주는 힘으로 단련하여 살(肉)을 이루게 하고, 精海의 탁한 찌꺼기는 발이 구부리는 강한 힘으로 단련하여 뼈(骨)를 이루게 한다.”⁵⁹⁾

頭腦·背脊·腰脊·膀胱에 있는 臑海·膜海·血海·精海의 탁재는 頭手腰足의 伸收放屈 작용에 의해 皮毛·筋·肉·骨이 된다고 하였다. 「장부론」의 頭手腰足은 「성명론」의 頭肩腰臀과 대응되는 것으로 身四端인 屈放收伸을 통해 인체의 기 흐름에 대하여 논하고 있기 때문에 命인 頭肩腰臀과 身四端인 屈放收伸이 결부됨을 추론할 수 있다.

이상에서 事心身物과 天人性命의 상관성에 있어서, 事四端인 貌言視聽와 天인 耳目鼻口·心四端인 學問思辨과 人인 肺脾肝腎·物四端인 意慮膽志와 性인 頤臆臍腹·身四端인 屈放收伸과 命인 頭肩腰臀이 각각 결부됨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발굴된 『동의수세보원』 草藁에서도 위에서 고찰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神은 意를 편안하게 하고 氣는 魄을 편안하게 하고 血은 魂을 편안하게 하고 精은 志를 편안하게 한다. 머리는 펴기를 잘 하고 팔뚝은 거두기를 잘 하고 배는 내놓기를 잘 하고 다리는 구부리기를

59)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臑海之濁滓則頭, 以直伸之力, 鍛鍊之而成皮毛, 膜海之濁滓則手, 以能收之力, 鍛鍊之而成筋, 血海之濁滓則腰, 以寬放之力, 鍛鍊之而成肉, 精海之濁滓則足, 以屈強之力, 鍛鍊之而成骨.”

잘 한다. 肺는 배움을 편안하게 하고 脾는 물음을 편안하게 하고 肝은 생각을 편안하게 하고 腎은 분별을 편안하게 한다. 귀는 듣기를 잘하고 눈은 보기를 잘 하고 혀는 말을 잘 하고 턱은 모양을 잘한다.”⁶⁰⁾라고 하여, 意慮膽志의 物四端은 神氣血精에, 屈放收伸의 身四端은 頭手腰足에, 學問思辨의 心四端은 肺脾肝腎에, 聽視言貌의 事四端과 耳目鼻口에 각각 결부시키 논하고 있다.

한편 「性命論」에서는 “天時는 극히 넓고, 世會는 극히 크고, 人倫은 극히 넓고, 地方은 극히 멀다.”⁶¹⁾라고 하고, 「儒略」에서는 “辨은 밝히기 위함이니 엄숙함이 지극히 멀고, 思는 삼가기 위함이니 다스림이 극히 넓고, 問은 살피기 위함이니 밝음이 극히 크고, 學은 넓게 하기 위함이니 도모함이 극히 넓다.”⁶²⁾라고 하여, 事心身物과 天人性命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天機 有四와 心四端인 辯思問學의 작용으로 極蕩·極大·極廣·極邈을 논하여, 天인 耳目鼻口와 心四端到 결부되는 人인 肺脾肝腎이 체용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또 「反誠箴」 坤箴에서는 “辨을 능히 하면 힘이 강하고, 思를 능히 하면 才能이고, 問을 능히 하면 권형하고, 學을 능히 하면 識見이다.”⁶³⁾라고 하여, 學問思辨에 능하면 強力·재능·權衡·識見이 있게 된다고 하였다. 命인

60) 『동의수세보원 草藁』, 原人 第四統, “神安意 氣安魄 血安魂 精安志, 首能伸 肱能收 腹能放 股能屈, 肺安覺 脾安問 肝安思 腎安辨, 耳能聽 目能視 舌能言 頤能貌.”

61)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天時, 極蕩也, 世會, 極大也, 人倫, 極廣也, 地方, 極邈也.”

62) 『格致藁』, 「儒略」, 天下, “辨所以明也, 肅極邈也, 思所以慎也, 艾極廣也, 問所以審也, 哲極大也, 學所以博也, 謀極蕩也.”

63) 『格致藁』, 「反誠箴」, 坤箴, “能辨則強力矣. 能思則才能矣. 能問則權衡矣. 能學則識見矣.”
『格致藁』, 「反誠箴」, 坤箴, “與人謀生, 謂之能辨, 與人謀能, 謂之能思, 與人謀慧, 謂之能問, 與人謀機, 謂之能學.”

頭肩腰臀에 있는 識見·威儀·材幹·方略은 身四端인 屈放收伸에 결부되어야 하는데, 心四端과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心四端과 身四端의 서로 채용의 관계에 따라 작용의 입장에서 心四端을 命인 頭肩腰臀에 결부시켜 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儒略」 '事物' 편에서는 不善한 嗇心·侈心·懶心·詐心과 善한 誠·勤·能·慧이 모두 私心·慾心·放縱·安逸에서 나온다고 하고,⁶⁴⁾ 이어서 “배우지 않을지언정 배움에는 인식과 정성 어느 것을 많게 하겠는가? 변별하지 않을지언정 변별함에 속임수와 근면 어느 것을 많이 하겠는가? 묻지 않을지언정 물음에 시치와 지혜 어느 것을 많게 하겠는가? 생각하지 않을 지언정 생각함에 게으름과 재능 어느 것을 많게 하겠는가?”⁶⁵⁾라고 하여, 學과 嗇(奪)·辨과 詐(竊)·問과 侈·思와 懶를 연계시켜 心四端인 學問思辨과 命인 頭肩腰臀에 있는 奪(嗇)侈懶竊(詐)을 결부시키고 있다. 心四端과 身四端이 서로 채용의 관계임을 통해 心四端은 性인 額臆臍腹에 결부되는데 여기서는 身四端이 결부되는 命인 頭肩腰臀에 있는 怠心과 같이 논하고 있다.

그런데 『東武遺稿』에서는 “膀臑은 物이고, 腰臍은 身이고, 胸膈은 心이고, 面目은 事이다. 事는 곧 天이고, 物은 곧 人이고, 身은 곧 命이고, 心은 곧 性이다. 天은 위에 있고, 人은 아래에 있고, 身은 왼쪽으로 향하고, 心은 오른쪽을 향한다. 天心은 사사로움을 미워하고, 人心은 욕심을 미워하

64) 『格致彙』, 「儒略」, 事物, “不獨嗇之不善, 出於私也, 雖誠之善, 亦出於私也, 不獨詐之不善, 出於欲也, 雖勤之善, 亦出於欲也, 不獨侈之不善, 出於放也, 雖能之善, 亦出於放也, 不獨懶之不善, 出於逸也, 雖慧之善, 亦出於逸也.”

65) 『格致彙』, 「儒略」, 事物, “有弗學, 學之嗇與誠, 孰多乎. 有弗辨, 辨之詐與勤, 孰多乎. 有弗問, 問之侈與慧, 孰多乎, 有弗思, 思之懶與能, 孰多乎.”

고, 命理는 편안함을 경계하고, 性理는 방종을 경계한다.”⁶⁶⁾라고 하여, 위에서 고찰한 내용과 다르게 그 관계를 논하고 있다.

事心身物을 面目·胸膈·腰臍·膀胱에 배치하고, 事心身物과 天人性命의 관계에서는 事와 天·物과 人·身과 命·心과 性에 결부시켜 事四端과 天·身四端과 命은 동일하게 결부시키고 있으나, 物四端과 人·心四端과 性의 결부는 서로 다르게 논하고 있다.

『동무유고』에서 논한 『격치고』의 事心身物과 『동의수세보원』의 天人性命의 관계를 통해 이제마가 다양한 입장에서 결부시키려고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사상철학의 근본적인 내용은 『격치고』와 『동의수세보원』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고찰한 내용을 근거로 사상철학과 사상의학의 관계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이제마의 사상철학과 사상의학의 핵심 키워드인 『격치고』의 事心身物 四象과 『동의수세보원』의 天人性命 四象구조의 상관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사상철학을 온전히 담고 있는 『격치고』의 事心身物은 『周易』의 四象원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事와 心은 본체적 입장이라면, 物과 身은 현상적

66) 『東武遺叢』, 第一篇, “膀胱, 物也, 腰臍, 身也, 胸膈, 心也, 面目, 事也. 事即天也, 物即人也, 身即命也, 心即性也. 天, 在上也, 人, 在下也, 身, 向左也, 心, 向右也. 天心, 惡私也, 人心, 惡慾也, 命理, 戒逸也, 性理, 戒放也.”

입장이기 때문에 事心身物은 본체와 작용이 일체화되어 드러나는 四象으로 事와 心·物과 身이 체용적 관계이며, 또 事와 物·心과 身도 체용의 관계이다.

사상의학을 집성한 『동의수세보원』의 天人性命은 사상의학의 철학적 원리를 직접 논한 것으로 天人性命 사상 구조에서 天과 人·性和 命이 각각 體用的 관계이며, 또 天과 性이 서로 짝을 이루고, 人과 命이 짝을 이루는 체용의 관계이다.

또 『격치고』에서는 事心身物 四象을 다시 事四端(貌言視聽)·心四端(學問思辨)·身四端(屈放收伸)·物四端(意慮膽志)으로 논하고 있으며, 『동의수세보원』에서는 天人性命 사상 구조를 다시 天(耳目鼻口)·人(肺脾肝腎)·性(頤臆臍腹)·命(頭肩腰臀)으로 논하고, 사상 구조를 인간의 구체적 마음작용으로 적용하여 好善之心·惡惡之心·邪心·怠心으로 논하고 있다.

事心身物과 天人性命의 상관성은 事四端인 貌言視聽와 天인 耳目鼻口·心四端인 學問思辨과 人인 肺脾肝腎·物四端인 意慮膽志와 性인 頤臆臍腹·身四端인 屈放收伸과 命인 頭肩腰臀이 각각 결부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事心身物과 天人性命의 상관성 고찰을 통해, 사상철학과 사상의학의 일관된 논리를 이해할 수 있으며, 그 관계도 일목요연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의학체계가 있지만, 철학사상에 근원하여 의학체계를 완성한 것은 사상의학이 유일하다고 하겠다. 사상의학이 ‘철학이 있는 의학’으로 규정될 수 있는 바탕이 바로 『격치고』에 있다. 『격치고』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특히나 사상철학의

근거인 『주역』을 비롯한 선진유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아직도 사상 의학의 본래적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동무는 철학과 의학을 창조적으로 융합하여 형이상의 철학 세계를 의학으로 풀어냈으며, 또한 의학을 통하여 인간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밝힌 것이다. 『周易』의 道를 인간의 몸(몸)으로 구현한 사상철학은 철학이 관념적 유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바로 하나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또 사상철학은 단순히 사상의학의 철학적 원리를 밝힌 것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에 자신의 철학을 전개한 것으로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철학사상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周易』, 『書經』, 『詩經』.

『論語』, 『大學』, 『中庸』, 『孟子』.

李濟馬, 『格致叢』.

_____, 『東醫壽世保元』.

_____, 『東武遺稿』.

이창일, 『동무 이제마가 남긴 글 東武遺稿』, 청계, 1999.

임병학, 「동무 이제마의 四象의 사유체계와 『맹자』」,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53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235-264쪽.

_____, 「주자의 『易學啓蒙』에 근거한 동무 이제마의 역학적 사유체계의 특징」, 『한국문화』 제66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427-450쪽.

_____, 「哀怒喜樂에 대한 心理·生理的 해석과 그 易學的 근거 - 『동의수세보원』 「四

端論」을 중심으로 -」, 『영남학』 제25집,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4, 363-387쪽.

_____, 「文王八卦圖에 근거한 哀怒喜樂과 四象人 臟局의 大小 형성에 관한 고찰 - 「동의수세보원」 「사단론」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제72호, 한국동서철학회, 2014, 63~84쪽.

_____, 「사상철학의 마음 연구(1) 「동의수세보원」 「성명론」의 四象心에 대한 고찰」, 『장서각』 제33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236~257쪽.

池圭鎔 譯解, 『동무 격치고 역해』, 영림사, 2001.

한동석, 『동의수세보원주해』, 성리회출판사, 1967.

홍순용·이을호, 『사상의학원론』, 행림출판, 1976.

Abstract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Gyeokchigo*'s
SaSimSinMul(事心身物) and *Donguisuseibowon*'s
ChunInSungMyeong(天人性命)

Lim, Byeong-Hak

This paper is about interrelationship between SaSimSinMul Sasang of *Gyeokchigo* and ChunInSungMyeong Sasang constitution of *Donguisuseibowon* that are core keyword of Sasang philosophy and Sasang medicine, Lee Je-Ma has originated.

Lee Je-ma defined Sasang that is core of his Sasang philosophy to SaSimSinMul in *Gyeokchigo* volume 2, Bansungzam(反誠箴).

Gyeokchigo Volume 1. Yurak(儒略) philosophical contents of SaSimSinMul had been treated and *Donguisuseibowon* Volume 1. Sungmyoungwon(性命論) had been described Sasang constitution of ChunInSungMyeong.

In *Gyeokchigo*, he explained SaSimSinMul Sasang to Sasadan(貌言視聽) · Simsadan(學問思辨) · Sinsadan(屈放收伸) · Mulsadan(意慮膽志) again. Lee Je-Ma interpreted ChunInSungMyeong organization of Sasang to Chun(耳目鼻口) · In(肺脾肝腎) · Sung(額臆臍腹) · Myeong(頭肩腰臂) once again in *Donguisuseibowon*. Also he explained mind of Hosun(好善之心), mind of Oak(惡惡之心) · Sasim(私心) · Taesim(怠心) through adopting ChunInSungMyeong organization of Sasang to concrete the workings of the human mind.

It turned out interrelationship between ChunInSungMyeong and SaSimSinMul as follows.

It related to MoUnSiChung(貌言視聽) and ears · eyes · nose · mouth(耳目鼻口), HakMunSaByen(學問思辨) and the Lung · Spleen · Liver · Kidney(肺脾肝腎), UiLyeDamZi

(意慮膽志) and Chin·chest·navel·stomach(領臆臍腹), GulBangSuSin(屈放收伸) and Head·Shoulder·waist·Hip(頭肩腰臀) respectively.

Therefore we can understand coherent logic of Sasang philosophy and Sasang medicine through this study. And it proved relations SaSimSinMul and ChunInSungMyeong manifestly.

And Lee Je-Ma completed his own Sasang philosophy based on Confucian. He is a philosopher that practiced the fusion of philosophy and medicine.

Key Word

DongMu Lee Jea-Ma, *Gyeokchigo*, *Donguisusebowon*, Sasang,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aSimSinMul(事心身物), ChunInSungMyeong.(천인성명)

- 논문투고일 : 2015.12.14. 심사완료일 : 2016.2.4. 게재결정일 : 2016.2.12.